

도내 건설수주액 1년 새 60% 급감

올 2월 1,430억원 집계

올 2월 도내 일반건설업체 건설수주액이 1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 31일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1,430억원으로 집계됐다. 이는 전년 동월 기록한 3,594억여원에 비해 60.2% 감액된 수치다.

발주자별로 민간 부문 수주액이

신규주택, 사무실, 숙박시설 등의 공사물량 감소로 1년 전보다 77.6% 줄어든 447억원에 그치며 감소세를 주도했다. 공공 부문도 이전만 못한 도로·교량, 신규주택 공사량 여파로 수주액은 전년 대비 54.2% 감소한 462억원이었다.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 수주액이 2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1.3% 크게 줄었다. 이 역시 도로·교량, 발전·송전시설공사의 수주량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.

윤종현기자 jjong@kwnews.co.kr

도내 건설공사 향토업체 수주율 25% 불과

작년 1억원 이상 원도급 17조원

도내 건설사 계약 4조3000억원

지난해 강원도에서 전년대비 2배가 넘는 17조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이 이뤄졌지만 강원 향토건설사의 수주 계약액은 전체의 25% 수준인 4조원대에 불과, 도내 건설시장에서 타 시·도 대형 원도급사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.

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현장이 강원도인 건설공사 중 종합·전문건설업체의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 총 계약액은 17조원으로 2017년(8조1000억원)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5년전인 2014년(6조4000억원)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.

이같은 수치는 그동안 도내 교통망

개선회재와 평창동계올림픽, 주택건설 등 각 분야의 공사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.

하지만 그 중에서 강원도가 본사인 향토건설사들의 계약액은 4조3000억원으로 도내 총 건설공사 계약액의 25.2%에 불과했다. 2017년(4조원)보다 3000억원(7.5%), 2015년(3조6000억원)보다 7000억원(19.4%) 늘었는데 그쳤다.

이 때문에 강원도 건설현장에서 타 시·도 대형건설사 수익만 확대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“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무실적을 기록한 업체도 수두룩 했다”며 “강원도에서 대형공사가 치러지더라도 도내 업체는 하도급 외에는 뛰어들 기회가 여전히 부족, 지원대책이 시급하다”고 말했다.

신관호

건설수주 추이 (단위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%)



건설수주, 두달연속 20% 이상 급감

2월 수주액 6조6970억
 지난해보다 26.6% 감소
 건설기성도 10.6% 줄어
 경기 급하강 우려 가시화

올해 들어 건설수주액이 두 달 연속 20%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며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.

31일 통계청의 '2019년 2월 산업활동 동향' 자료에 따르면, 2월 건설수주는 6조69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(9조1220억원)보다 26.6%나 줄었다.

지난 1월 26.4%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20% 이상 뒷걸음질친 것으로, 건설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.

2월 건설수주를 공사종류별로 보면 주택시장 침체와 설비투자 감소 영향으로 토목보다 건축분야가 부진했다.

건축분야는 4조6080억원으로 -27.8%를 기록했다. 특히 공장·창고는 무려 66.4%나 줄었다.

토목분야에서도 2조88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3.8% 줄었다. 특히 도로·교량은 무려 61.5%나 급감했다. 정부 건설투자 감소가 원인으로 풀이된다.

발주자별로는 공공(-17.8%)과 민간(-33.1%)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. 특히 민간은 지난달에 이어 뒷걸음질쳤다. 지난해 9월에 나온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6개월째 환파를 맞은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.

현재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부진했다. 2월 7조29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.6% 줄었다.

이 같은 통계가 나오자 건설투자 급감

에 따른 건설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'2019년 건설경기 전망'에서 "올해 건설경기 하강 속도가 과거보다 두 배 이상 빨라 경착륙이 예상된다"고 내다봤다.

특히 미래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수주가 두 달 연속 20% 이상 급감하면서 건설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.

건설수주와 건설기성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건설업 취업자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 이는 전체 고용 지표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.

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'2월 고용동향'에 따르면, 올 들어 건설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세를 기록했다.

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(198만8000명)보다 1만9000명 줄며 2년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더니, 2월(196만1000명)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(196만4000명)보다 3000명 감소했다.

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"지난해 건설투자가 4% 줄었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을 0.7%포인트 낮췄다. 한국은행 등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으며 이는 경제 하방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"라고 밝혔다.

이어 "건축투자는 올해도 부진이 지속할 전망이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건축시장이 위축됐을 때 공공부문에서 그동안 축소해온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완충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

한상준기자 newspia@